

격추

주요 등장 인물들

코르누코프 (Kornukov) -아나톨리 코르누코프 장군, 당시 소콜 공군기지 (사할린 소재) 사령관. 1998년 1월 22일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코르누코프를 러시아의 신임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게라시멘코 (Gerasimenko) - 지휘관 대리, 41 비행 연대

오시포비치 (Osipovich) - 겐나디 오시포비치 소령, 호출 부호가 805인 수호이 (Sukhoi) 15 플래건 (Flagon) 요격기 조종사.

타라소프 (Tarasov) -오시포비치의 플래건 지원 위치에서 비행하는 호출번호 121의 수호이 SU-15, 플래건의 조종사

티토브닌 (Titovnin) -오시포비치 소령의 비행 관제관, 전투기 사단의 전투 통제실 소속



Major Osipovich (center), courtesy of airbase.uka.ru

보여지는 시간들은 협정 세계 표준시 (UTC) 에 따른 것이다. 1983년 9월 1일 이른 아침, 사할린 영공이었다.

다음은 Rescue 007 (KAL 007 풀리지 않는 의혹들) 이란 책의 22 - 26 (한글본 27-30) 페이지를 인용한 것이며, 러시아어 사본은 1993년 ICAO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공중에 있던 오시포비치와 지상에 있던 지상 관제관 티토브닌 사이에 이루어진 이상의 교신 내용은 소련측 (티토브닌의 교신 부분) 자료와 미국 국가 안전 보장국 (NSA) 의 감청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오시포비치가 지상 관제관에 보낸 교신 내용을 담은 테이프가 KAL 007 피격 직후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공개되어 소련 대표단을 무척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해설 제공- 버트 슬로스버그

코르누코프: (18:21)

게라시멘코, 지휘소 조용히
좀 시켜, 왜 이리 시끄러워?
전투 임무 반복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라. 목표물
60-65 [KAL 007] 에
발사하라. 목표물 60-65를
파괴하라.



General Anatoli Kornukov, courtesy of Pravda.RU

게라시멘코: (18:22)

알겠습니다.

코르누코프:

명령대로 하고 타라소프 (Tarasov) 연결시켜. 미그 23기의 통제권을
스미르니크에서 넘겨받아. 호출 부호 163, 호출 부호 163 말야. 지금 목표물
바로 뒤에 있다. 목표물을 파괴하라!

게라시멘코:

임무 접수. 미사일 공격으로 목표물 60-65를 파괴하라. 스미르니크로부터
전투기의 통제권을 이양 받으라.

코르누코프:

임무를 수행하라. [그것을] 파괴하라!

*그러나, 007기는 잠시 시간을 번다. 엔진의 힘이 고도를 올리는데 쓰이자
고도가 올라가고 속도가 줄었다. 그 사이 오시포비치의 수호이 15기가 KAL
007을 따라잡아 나란히 비행하게 된 것이다. 오시포비치 소령은 비행
관제관인 티토브닌과 교신하면서 짜증을 낸다.*

오시포비치: (18:22:02)

목표물이 속도를 줄이고 있다.

오시포비치: (18:22:17)

그 주위로 돌아간다. 벌써 목표물보다 앞서고 있다.

티토브닌:

속도를 높이라, 805 [오시포비치가 조종하는 수호이의 호출 부호].

오시포비치: (18:22:23)

속도를 높였다.

티토브닌:

목표물이 속도를 높였는가? 그런가?

오시포비치: (18:22:29)

아니다. 목표물은 속도를 줄이고 있다.

티토브난:

805, 목표물에 발사하라.

오시포비치: (18:22:42)

좀 전에 발사했어야 했다. 어떻게 추격해야 하나? 벌써 목표물과 나란히 날고있다.

티토브난:

알았다. 가능하면, 공격 위치를 잡으라.

오시포비치: (18:22:55)

목표물 뒤로 좀 물러나야 한다.

관제관과의 대화에서 오시포비치가 짜증을 냈다. 이것은 전투 상황에서 재량권이 있는 미군 조종사와 달리, 소련군 조종사는 모든 움직임을 '무선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KAL 007기는 6시 23분에 고도 35,000피트 (10, 600미터) 에서 수평을 유지했다. 이제 3분 후, 오시포비치의 '아납'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뒤쪽에서 순식간에 다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르누코프 장군이 짜증과 우려를 드러냈다. 코르누코프가 게라시멘코에게 보낸 교신을 보면, KAL 007을 격추한 것은 소련 측에 위협이 되어서가 아니라 소련에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코르누코프:

이런, [육설], 공격 위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거야], 벌써 공해까지 나가 버렸잖아. 빨리 후기 연소기 가동해. 미그 23도 불러들여.네놈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목표물이 급세 날아가 버릴거야.

오시포비치 소령은 미그 23기 (호출부호 163) 의 지원을 받으면서, 8 킬로미터 뒤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는 KAL 007이 파괴될 거라 믿은 것이 분명하다 (그는 폭발하는 여객기의 파편에 맞지 않기 위해서 목표물과의 거리를 미리 충분히 확보한 것이다).

티토브난:

805, 기관포로 목표물을 파괴하라.

오시포비치: (18:22:37)

지금 뒤쪽으로 물러서고 있다. 이제 로켓탄을 쏘겠다.

티토브난:

알았다.

미그 23 (163): (18:23:49)

목표물과의 거리는 12 킬로미터. 둘 [오시포비치가 조종하는 소련군 요격기와 KAL 007] 이 다 보인다.

티토프난:

805, 목표물에 다가가서 목표물을 파괴하라.

오시포비치: (18:24:22)

알았다. 조준한 상태이다.

티토프난:

805, 목표물에 접근하고 있나?

오시포비치: (18:25:11)

지금 접근하고 있으며, 조준한 상태다. 목표물과의 거리는 8 킬로미터이다.

티토프난:

후기 연소기 가동.

티토프난:

후기 연소기, 805!

오시포비치: (18:25:16)

벌써 가동시켰다.

티토프난:

발사!



Sukhoi 15 TM Flagon

여기서 KAL 007 기 조종실을 잠시 들여다 보고, 파괴에서 탈출로 이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여 FAQ#5 -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KAL 007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를 읽어보면 된다.

오시포비치: (18:26:20)

발사 했다.

오시포비치: (18:26:22)

목표물은 파괴되었다.

티토브난:

공격을 중단하고 우측 360도 방향으로 이동하라. [정북방향]

오시포비치: (18:26:27)

공격을 중지한다.

1996년 오시포비치는 그가 추락시킨 '목표물'이 민간인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임을 알았다는 이전의 언급을 번복하려 했다.

"두 줄의 창문을 보고 보잉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민간 여객기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간 여객기 형태의 비행기를 전투용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요." (뉴욕 타임즈 인터뷰, 1996년 9월 9일)